

일본 성서 번역의 역사

카추오미 쉬마사키*
이형원 번역**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어로 된 성서 번역서들 중에 주된 것들을 선별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일본 성서 번역의 역사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개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에도 시대(The Edo Era: 16-19세기)

1.1. 가톨릭

1.1.1. 싸비에르(Xavier)의 마태복음(1548)

예수회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프란시스 싸비에르(Francis Xavier, SJ: 1506-1552)는 아시아 선교사가 되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 후에 그는 말라카(Malacca: 역자주, 말레이시아의 한 섬)로 왔는데 거기서 1547년에 야지로(Yajiro)라는 이름의 일본인을 만났다. 싸비에르는 야지로를 가톨릭 학교로 보냈고 야지로는 1548년에 세례를 받았다. 그는 그 학교에서 계속 배웠고 그의 도움으로 싸비에르는 마태복음의 요약된 번역서를 만들었다. 이것이 일본어로 된 최초의 성서인데, 싸비에르가 1549년에 일본 땅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다른 번역된 문서들과 함께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번역된 문서들은 분실되었다.

1.1.2. 페르난데스(Fernandes)의 사복음서(1552)

싸비에르와 일본으로 동행했던 후안 페르난데스(Juan Fernandes, SJ: 1525-

* 일본성서공회 번역실 책임자.

**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568)는 1552년에 사복음서와 아울러 사도신경, 주기도문, 아베 마리아, 십계명, 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주석들을 번역했는데, 1563년에 그것들의 단일본을 소장하고 있던 교회가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모두 소멸되었다.

1.1.3. 『경도판신약성서』(Kyoto version, 1612)

신약전서가 1612년에 경도(Kyoto)에 있는 예수회 대학에 의해 발간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해부터 시작된 기독교 금지로 심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되지 못했다. 이 역본과 페르난데스의 그것과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역본이 발간되기 이전에 여러 종류의 수난 이야기들과 다른 문서들이 여러 곳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읽혔지만, 표준이 되는 책은 없었다. 이 경도판의 몇 구절들이 “일본인을 위한 교리문답서,” “주님의 수난” 그리고 “기독교 교리”와 같은 문서들에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개신교

심각한 핍박 때문에, 우리는 3 세기 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성서 번역의 발전에 관해 추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18세기와 19세기의 세계 복음화와 성서 번역의 물결은 일본 성서 번역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우리는 중국어 성서 번역부터 살펴볼 터인데, 그 이유는 몇 가지의 중국어 성서들이 성서의 일본어 번역에 크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1.2.1. 중국어 성서들

1.2.1.1. 모리슨-미른(Morrison-Milne, 1823)

로버트 모리슨(J. Robert Morrison, LMS: 1814-1843)은 1807년에 영국성서공회(BFBS: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에 의해서 중국으로 파송되었다. 그는 1823년에 말라카에서 윌리엄 미른(William Milne, LMS)과 협력하여 성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신천성서』를 발간했다. 그들이 일본인들도 그 성서의 독자들이고 고려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대에 일본의 지식층이 중국어를 읽고 쓸 줄 알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을 향한 모리슨의 애정이 귀츠라프(Gutzlaff)에게 전수되었는데, 그는 류큐(Loochoo: 역자주, 오키나와 현의 섬들)에 와서 모리슨-미른 성서들을 배포했다.

1.2.1.2. 브릿지만-쿨벳슨(Bridgman-Culbertson, 1864)

모리슨-미른 성서는 일련의 선교사들에 의해 1852년에 신약성서가, 그리고 1854년에 구약성서가 개정되었다. 그것은 『위판역본』(the Deligate's Version)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미국인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상제(上帝)”로 번역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엘리야 브릿지만(Elijah C. Bridgman, ABCFM)과 마이클 쿨벳슨(Michael S. Culbertson, PN)은 1864년 상해에서 『구신약전서』를 번역하여 발간했다. 그들의 번역은 일본어 번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1.2.2. 귀츨라프(Gutzlaff)의 요한복음(1837)

화란 선교사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us Gutzlaff, LMS: 1803-1851)는 1837년에 마카오에 있는 일본인 어부들 몇 명의 도움을 받아 모리슨의 중국어 번역을 참고하면서 요한복음을 일본어로 번역했다(『약한복음지전』). 그것은 미국 성서공회(ABS)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해외선교회(ABCFM)의 인쇄소에서 발간되었다. 이것은 현존하는 일본어 성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초에 한 지식인이 있었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번역은 널리 알려져 있다.

1.2.3. 베텔하임(Bettelheim)의 복음서들(1855)

류큐 해군 선교회(Loochoo Naval Mission, LNM)는 베텔하임(Bernard J. Bettelheim, 1811-1870)을 1846년에 류큐로 파송했다. 그는 류큐에 도착하기 전에 홍콩에서 귀츨라프로부터 일본어를 배웠다. 그는 복음을 전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었고 언어에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 그가 류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하(Naha)와 슈리(Shuri)와 같은 도시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또한 펄박 가운데서도 성서를 류큐어로 번역했다. 그가 류큐를 떠나야했을 때, 그는 류큐 해군 선교회의 재정적 지원으로 1855년에 홍콩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를 발간했다(『로가전복음서』, 『약한전복음서』, 『성차언행전』, 『보라기라마인서』).

1.2.4. 요약

이러한 중국어, 일본어 성서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열정의 결과로 이루어졌

으며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던 일본으로 몰래 들어와졌다. 그것들은 결국에 일본의 지식층에 의해 읽혀졌다.

2. 메이지 시대(The Meiji Era: 1868-1912)

일본의 에도 정권은 1859년에 나라를 개방했다. 비록 기독교가 여전히 금지되었지만 선교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일본으로 왔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일본의 복음화를 준비하기 위해 성서를 번역하는 일에 그들의 노력을 집중했다. 에도 정권이 물러나고 메이지 시대가 도래했다.

2.1. 개신교

2.1.1. 고블(Goble)의 마태복음(1871)

일본 내에서 일본어 성서를 처음 발간한 사람은 1860년에 일본에 온 요나단 고블(Jonathan Goble, ABF)이다. 그는 그리스어 원문과 킹 제임스 번역(KJV)으로부터 구어체 번역을 시도하여 1871년에 도쿄에서 비밀리에 『마태복음』을 발간했다.

2.1.2. 헵번-브라운(Hepburn-Brown)의 복음서들(1872)

제임스 헵번(James C. Hepburn, PN)은 1859년에 일본이 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에 왔다. 그는 사무엘 브라운(Samuel R. Brown, RCA)과 함께 1872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번역하여 발간했다(『신약성서 마태전』, 『신약성서 마가전』, 『신약성서 약한전』). 헵번과 브라운은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읽을 수 있어서, 문체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에게 의해 이해될 수 있는 번역을 시도했다. 그들은 브릿지만-쿨벳슨이 만든 중국어 성서(『신약전서』, 1861)를 참고했다. 영문 번역(alphabet version)과 일본어 번역이 있다.

2.1.3. 메이지(Meiji) 역본(1887)

일본에 있는 세 선교 단체들(장로교-장로회 해외선교회, 개척파-개척교회 해

외 선교회, 회중교회-미국 해외선교회)에 속한 개신교 선교사들이 1872년에 헵번의 집에 모여 신약성서를 공동으로 번역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다른 선교 단체들에게 그들과 협력하도록 부탁하고, 1874년에 “신약성서 번역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브라운(RCA), 헵번(PN), 다니엘 그린(Daniel C. Green, ABCFM), 로버트 맥클레이(Robert S. Maclay, MEFB), 나단 브라운(Nathan Brown, ABF), 요한 파이퍼(John Piper, CMS) 그리고 라이트(W. B. Wright, SPG)를 위원들로 선정했다. 그러나 파이퍼와 라이트는 곧 위원회로부터 사퇴했고, 맥클레이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 나단 브라운은 “세레(침례)”라는 용어의 번역 때문에 위원회를 떠났다. 그리하여 주된 번역자들이 세 명이 되었다: 헵번, 그린 그리고 사무엘 브라운. 세 명의 일본인들이 그 선교사들을 각각 도왔는데 그들은 마사츠키 오쿠노(Masatsuna Okuno), 타카요시 마추야마(Takayoshi Matsuyama) 그리고 고로 타카하시(Goro Takahashi)이다. 그것의 본문은 그리스어 표준 원문(Greek Textus Receptus)과 KJV이었고, 그들은 브릿지만-쿨버슨의 중국어 성서를 참고했다. 그들은 1880년에 신약성서(『신약전서』)를 완성했고 그것은 영국성서공회(BFBS), 미국성서공회(ABS) 그리고 스코틀랜드성서공회(SBS)의 협력 아래 발간되었다.

그 선교사들은 1878년에 구약성서의 번역을 위해 “성서 본문의 번역, 개정, 발간 그리고 보전을 위한 상치 위원회(『성서번역상치위원회』)”를 형성했다. 헵번, 필립 파이슨(Philip K. Fyson, CMS) 그리고 버벡(G., H. F. Verbeck, RCA)과 함께 타카요시 마추야마, 우에무라(Uemura) 그리고 카지노스케 이부카(Kajinosuke Ibuka)가 구약성서를 번역하여 1887년에 세 성서공회를 통해 성서 전체를 발간했다(『구신약성서』).

그 선교사들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일본인들을 위한 성서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쉬운 번역을 원했다. 반면에 번역을 돕던 일본인들은 중국어 성서처럼 문체의 우아함을 선호했다. 그 결과로 일본어-중국어가 복합된 독특한 작품이 나왔다. 메이지 역본은 메이지 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배포된 일본어 성서가 되었다. 그것의 문체는 일본 문학과 그 문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1.4. 중국어 성서를 일본어 성서로 번역하기 위한 지침들

그 시대의 평범한 일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식층 일본인들은 이 일본어-중국어 복합된 작품을 저속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생각했다: 그들은 브릿지만-쿨버슨의 중국어 성서를 읽

을 때 필요한 지침들을 제공했다(『훈점 성서』). 지침들이 포함된 이 성서는 1873년부터 1888년까지 발간되었다.

2.2. 가톨릭

개신교에서는 성서 번역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시켰지만 가톨릭은 이 분야에 있어서 더디었는데, 왜냐하면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나가사키 지역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한 핍박 때문에 가톨릭 교인이라는 신분을 숨겼다. 가톨릭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다.

2.2.1. 스티첸(Steichen)의 사복음서들(1897)

그러나 마이클 스티첸(Michael Steichen, MEP)은 메이지 역본을 만들 때 도왔던 고로 타카하시의 협력 아래 벌게이트 성서(Vulgate Latin Bible)에 기초하여 사복음서들을 번역했다. 그 복음서들은 요코하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1895년에 발간되었다.

2.2.2. 라게(Raguet)의 신약성서(1910)

벨기에인인 에밀 라게(Emile Raguet, MEP)는 벌게이트 성서 본문과 그리스어 성서(네슬 판?)를 참고하면서 신약성서 전체를 번역했다(『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성서』). 그의 일본어는 메이지 역본보다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비록 그것이 한 개인에 의해 번역되었지만, 가톨릭 성서의 표준으로 취급되었다.

2.3. 정교회: 니콜라이(Nicolai)의 신약성서(1901)

러시아 정교회는 1861년에 이완 니콜라이(Ioan Kasatkin Nicolai)를 홋카이도의 하코다테(Hakodate)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의 신부로 파송했다. 그는 일본에 관해 7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 후 1868년에 사와노베(Sawanobe)라는 첫 개종자를 얻었다. 니콜라이는 러시아로 갔다가 1871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다. 니콜라이는 추구마로 나카이(Tsugumaro Nakai)라는 일본인과 함께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고 1901년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발간했다. 그것의 원본은 슬라브인 성서였고 문체는 중국어와 유사했다. 그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KJV 그리

고 중국어 성서들을 참고했다. 시편이 번역되었지만, 구약성서는 완전하게 번역되지 못했다.

3. 타이쇼 시대(Taisho Era: 1912-1926): 타이쇼 개정판(1917)

메이지 역본이 발간된 이후로 일본어가 급격하게 바뀌었고, 성서학자들의 숫자도 늘었다. 개정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메이지 역본을 번역했던 ‘성서 본문의 번역, 개정, 발간 그리고 보전을 위한 상치 위원회’는 1909년과 1910년에 8명의 번역자들(네 명의 선교사들과 네 명의 일본인들)을 선정했다. 그들은 보다 구어적이면서도 장중함을 유지하는 일본어 문체를 추구했다.

그것은 원문은 영국성서공회가 발간한 네슬 개정판이었는데, 그들은 영어 개정판(English Revised Version)을 참고했다. 결국 1917년에 세 성서공회(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의 지원으로 『개역 신약성서』가 발간되었다. 이것은 타이쇼 시대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이쇼 개정판이라고 불린다(『다정개역』). 현재 문자적으로 번역된 신약성서가 이 타이쇼 개정판이다.

그 위원회는 구약성서도 개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났다.

4. 전쟁 이후(1945-)

4.1. 개신교

4.1.1. 구어체 역본(1955)

전후 시대에 모국어에 관한 교육성의 정책은 일본어의 서체를 급격하게 바꾸었다. 사용할 수 있는 중국어 철자의 수를 제한했고, 서체도 구어체에 보다 가깝게 만들었고, ‘가나’(역자주, 히라가나, 가타가나)의 읽기 체계도 단순화시켰다. 이러한 변화가 배경이 되어, 1955년에 구어체 역본이 발간되었다(『성서』 구어역). 이 새 역본의 목적은 대중들과 특히 새 언어 정책 아래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젊은이들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성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의 원문은 NA 19와 21(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19, 21판) 그리고 키텔 3(BHK 3판)이었다. 이 역본은 신약성서를 완성하는 데 단지 삼 년이 걸렸고, 구약성서에

는 사년 반이 걸렸다. 그 이유는 첫째로, 번역자들이 그 당시에 일본어로 된 최고의 성서 번역서였던 타이쇼 개정판 신약성서를 참고했고, 둘째로, 메이지 역본의 구약성서를 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들을 번역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발간되었을 때 지식층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새 번역이 너무 저속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역본은 일본 개신교회들에서 급속하게 수용되었고 수십 년 동안 일본인들을 위한 표준 성서가 되었다.

4.1.2. 새개정판(1973)

개신교의 보수 진영에서는 그 역본이 신학적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역본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1973년에 『성서신개역』을 독자적으로 번역하여 발간했다. 그것의 원문은 네슬 27판과 키텔 3판이었다. 이 성서는 종종 NIV와 유사한 일본어 역본으로 간주되고 있다.

4.2. 가톨릭

4.2.1. 발바로(Barbaro)의 역본(1964)

페데리코 발바로(Federico Barbaro, SDB)는 라게의 역본을 기초로 하여 구어체 일본어 성서를 번역했는데, 이것은(『구어역 구약신약 성서』) 1957년에 단 보스코사(Don Bosco Inc.)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것은 이차 대전 이후 가톨릭에서 표준이 되는 구어체 성서가 되었다.

4.2.2. 프란시스코회 역본(1958-2001)

프란시스코 성서 연구회(Studium Biblicum Franciscanum)가 성서를 원어로 부터 번역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57년에 도쿄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의 학자들이 공동역성서(interconfessional Bible¹⁾, 아래 참조)를 번역하는 팀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체의 번역 사업은 늦추어졌다. 그들의 신약성서는 1978년에, 그리고 구약성서는 2001년에 완성되었다. 그 책의 공식적인 제목은 『성서 원문교정비평구어역』이다(성서: 원어에 기초한 구어체 비평역).

1) 역자주: 이 논문의 필자는 ‘상호교백적 성서’(Interconfessional Bible)라고 표현했지만 역자는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불리고 있는 『공동역성서』라는 명칭으로 대체했다. 필자의 상호교백적이란 용어는 요즘의 ‘에큐메니칼’이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4.3. 공동역성서

4.3.1. 신약성서 공동역(1978)

제2 바티칸 회의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신앙 고백적인 면에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번역을 만들도록 권고함에 따라, 여러 성서 공회들에서 가톨릭 학자들과 함께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이 일본에도 일어났다. 그것의 원문은 UBS 3과 BHS였다. 이 번역 사업은 대중을 독자로 삼았고 나이다(Nida)의 역동적 동등성 이론(dynamic equivalence theory)를 충실하게 따랐다. 그들은 1978년에 신약성서를 완성했다(『신약성서 공동역』).

4.3.2. 성서 신공동역(1987)

그러나 이 역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번역자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다 형식적인 번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역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교회 예배에 적합한 역본을 선호했다. 그래서 그 팀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새 번역을 시작했다. 이것이 형식적 일치에 강조를 둔 『성서 신공동역』이다. 그들은 또한 양식의 차이들을 표현하려 했는데 그 성공 여부는 차이가 있다. 그것의 원문은 UBS 3, BHS였고, 외경을 위해서는 칠십인역의 괴팅겐 역본, 그리고 에스라서를 위해서는 벌게이트였다. 그 팀은 46명의 번역자들, 19명의 편집자들, 11명의 편집 위원들 그리고 6명의 일본어 문장가들로 구성되었다. 그 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편집 과정의 구조도 복잡했기에 번역은 기대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87년에 외경을 포함한 성서 전체가 발간되어서(『성서 신공동역』), 그 이후로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서가 되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와 복음주의자들을 제외한 개신교회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성서공회는 올해 『성서 신공동역』이 발간된 지 20주년이 된 것을 축하했는데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천만 부가 팔렸다.

5. 다른 현대 역본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이외의 역본들도 많다. 복음주의 교단의 출판사 중에 하나

인 생명의 말씀사에서 The Living Bible을 발간했고; 몇 명의 학자들이 번역하여 이와나미(Iwanami) 출판사에서 발간한 성서(the Bible); 마사오 세키네(Masao Sekine), 토라지 추카모토(Toraji Tsukamoto), 레이지 오야마(Reiji Oyama), 켄조 타가와(Kenzo Tagawa), 아키라 이주타(Akira Izuta) 등을 비롯하여 또 다른 이들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들도 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있었던 흥미로운 추세 하나가 있다면 방언 역본들이다: 오사카(일본 중부 지역) 방언으로 된 마태복음, 케센(일본 북부 지역) 방언으로 된 사복음서 등이 있다.

<주요어>

일본, 번역, 성서, 번역사, 선교사.

<참고 문헌>(References)

- 일본성서공회. 『화역성서의 역사』, 도쿄: 일본성서공회, 일본, 1999.
 일본성서공회. 『일본성서협회 125년사』, 도쿄: 일본성서공회, 일본, 2001.
 아리미치 에비사와. 『일본의 성서-성서화역의 역사』, 도쿄: 일본기독교단출판국, 일본, 1981.

<선교 단체들과 성서공회들의 약어표>

- ABCFM 미국 해외선교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미국 회중교회
 ABS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AMF/ABF 미국 침례교 선교부(American Baptist Missionary Union), 미국 침례교 해외선교회(American Baptist Foreign Mission Society)
 BFBS 영국성서공회(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BMS 침례교 선교회(Baptist Missionary Society)
 CMS 교회 선교회(Church Missionary Society)-영국 국교회, 저교회파
 LMS 런던 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LNM 루추 해군 선교회(Loochoo Naval Mission)
 MEFB 감리교 감독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북부
 MEP 파리 해외선교회(Paris Foreign Mission)
 PN 장로교 해외선교회(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북부
 RCA 미국에 있는 화란 개혁 교회 해외선교회(Board of Foreign Missions of -Dutch- Reformed Church in America)
 SBS 스코틀랜드 성서공회(Scottish Bible Society)
 SDB 보스코 신부의 살레스회(Salesians of Don Bosco)
 SJ 예수회(Society of Jesus)
 SPG 해외 복음전파회(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 영국 국교회, 고교회파

<Abstract>

A Short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Dr. Katsuomi Shimasaki
(Japan Bible Society Translation Officer)

The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began in the mid 16th century by Francis Xavier. Christianity was soon banned by the rulers of Japan, and the prohibition continued for more than 300 years. However, the wave of the world evangelization and bible translation reached the Far East at the turn of the 19th century and various versions of Japanese bibles were translated and smuggled into Japan. When the country opened its door, missionaries came and started transl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Japanese intellectuals. Since then, Protestants, Catholics and the Orthodox has produced many versions of Japanese bible. The most accepted translation now is the New Interconfessional Bible that was translated by both Protestant and Catholic scholars.